

연중 제 21 주일

기도서 420번(B해)

제1독서: 여 호 24, 1-2a, 15-17, 18b

제2독서: 에 페 5, 21-32

복 음: 요 한 6, 61-70

#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요한 6,68).

□ 감 론



## 인기 관리

법 영 배 신부

우리는 유명세(有名稅)를 물고 있는 인기인(人氣人)을 주위에서 보게 된다. 인기 연예인, 인기 운동선수, 인기 교수와 인기 정치가 등... 물론 자의(自意)가 아닌 타의(他意)에 의해 유명세를 물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인기가 떨어져 무명인(無名人)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인기관리를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한다. 심지어는 떨어지는 인기를 막기 위해 과장이나 조작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명인의 인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도 인기있는 유명인으로 세상을 살으셨다.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신 때도 있지만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는 돌아가신지가 2천 여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대단하다. 몇 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과연 인기관리를 예수님께서서는 철저히 하였던 것 같다.

근래 「학원안정법」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소의계층이라 보는 농촌을 위해 자금을 방출하기도 하며,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융자를 통해 인기를 얻고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또한 매스컴의 일방적인 보도를 통해 설득 아닌 강요를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더라도 결코 사탕발림의 일시방편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잃으셨는데 자신의 과오에 의한 것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랑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아온 우리나라의 유명 정치인이나 관리들은 진실을 왜곡한 때가 많았으며,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떠들어 놓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집까지 남에게 떠맡겼던 때가 많았다.

베드로 사도가 신앙고백을 한 것처럼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기록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요한 6, 68~69).

(신태인 천주교회)



## 50주년 회의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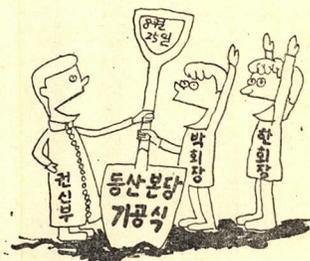
2년 뒤인 1987년은 우리 교구가 설정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50주년의 의미도 의미려니와 한국 최초의 방인(邦人)자치 교구라는 점에서 특별히 기념해야 할 해가 아닐 수 없다. 누구나가 아는 것처럼 전라북도의 도세는 약하다. 우리 교구도 지역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려움을 딛고 살아 온 50년은 우리에게 값진 나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유항검을 통하여 호남지방에 하느님의 말씀이 전파된 지 어언 2백년, 신앙 선조들의 생명을 제물삼은 공로로 이 땅에 교구가 설정되었다.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역사가 아니다. 지금은 유항검 일가의 후손조차 만날 길 없고, 그 넓다란 집들이 온데간데 없이 자그마한 웅덩이 하나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 알의 밀이 썩어서 많은 생명을 낳는 진리의 피를 마시고 자란 역사가 바로 오늘을 있게 한 것이다.

교구내 성직자·수도자·평신도 대표들은 지난 주간에 모여 50주년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역사를 담은 순교자 기념판도 만들고 교회사를 펴내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피정의 집을 세우자는 데도 의견이 하나되었다. 그러나 각박한 현실은 재원 열출의 벽에 부딪혀 많은 사람들을 갈망질망하게 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더욱 피곤했다.

그간 우리 신자들은 어려운 살림에서도 성당을 짓고 손질하느라고 애를 썼다. 허나 한가지 아쉬운 일은 아직도 할팽이 찢질같은 제 집에서 나올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웃 본당이나 교구차원의 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 기회에 신앙 선조들을 다시 생각하자. 어제가 없는 오늘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뿌리, 그리고 이웃없는 나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자.

## 숲 정 이 산책



주여!  
형제들을 도와 주소서...

□ 귀임인사

잘 다녀왔습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7월 9일 출국하였다가 8월 12일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부재시 저를 대신하여 교구 제반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오신 총대리 김환철 신부님과 신부님을 도와서 일해오신 책임있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번 해외출장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구에서 파견하는 피메이·도농 선교사 신부님들이 가실 페루를 현지 답사하는 일이고 둘째는 해외 한인교회를 순방하고 북미주에서 교포사목을 하는 신부님들의 연례총회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페루에는 남미에 가실 정승현 신부님을 동행하여 4박5일동안 머물면서 현지실정을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 중에서도 신부 부족이 가장 심한 페루에 우리 선교사를 파견하는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의 교황대사님과 리마 대교구장이신 란다쓰리 추기경님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정승현 신부님은 저와 헤어져서 멕시코에 가셨고 지금은 김윤섭·방의성 신부님과 함께 멕시코 대학에서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쯤 세분 신부님은 함께 페루로 가서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주교구의 명예를 걸고 새로운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시는 세분 신부님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 한인교회 순방도 필요한 것이었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우리교구 전대북신부님이 일하고 계시는 아르헨티나에서 새로 건축한 한국인 성당(건축비 20만불)의 축성식을 성대하게 하고 200명에게 전진성사를 준 일입니다. 북미와 캐나다에서 교포사목을 하고 계시는 박영규, 한봉섭, 김병환 신부님도 모두 건강히 일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교구민 모두에게 전하는 신부님들의 안부를 전해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지상으로 귀임인사에 대하여 앞으로 기회 있을 때에 보다 상세하고 필요한 말씀들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성서교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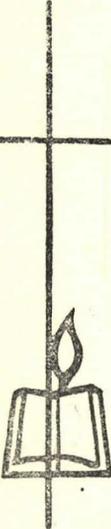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요한 6:42)

이 말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6:41)고 예수가 말한 데 대해서 유대인들이 한 말이다. 예수가 자기를 두고 「생명의 빵」(6:25-35)이라고 한 데 대해서 갈릴래아 사람들은 불신하였다(6:52-59).

갈릴래아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들도 예수의 말을 믿지 못했고(6:41), 유대인들도 불신했다(6:52). 이들의 불평은 예수가 「신-인」(神-人)이라는 점을 놓고,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여기서 다른 말하지 않고, 성부의 「이끌음 받는 자」, 「배움을 받는 자」(6:44-45)는 모두 자기에게로 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은 하느님께 대한 체험도 없고, 예수께 대한 믿음도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다.

신앙은 신입주전, 편견,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그들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6:42)라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자」는 이 고정관념을 깨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앙의 편견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6:41). 예수의 「빵」은 하느님의 아들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다. 예수의 「피」와 「살」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육화된 말씀 자체가 믿는자의 「양식」인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 아들 생명에의 참여를 말한다. 우리는 신앙으로 그분과 접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쉐티  
전주구역천오거리 ☎ 3-3032  
주. 윤 베드로

군산 태 광 약 국  
☎ 2 180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만성질환  
및 진장상담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북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벤지 |  
서울 주 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3개월 수료 자격증취득 보장  
개인지도, V.T.R 교육  
취업보장, 개업 알선  
미용을 하였으나 자신이 없으신분 상담 환영  
현대 미용학원  
중앙성당 건너편  
코야백화점 앞  
김 금 순(테레사)

# 교 구 소 식

※ 건진 : 김제 요촌천주교회-9월 1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1. 교구 혼인법원 상담 :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2. 성서 40주간(수·목) 개강 : 28일~29일 오전 10시, 교육관
3. 목요성서 개강 : 29일 저녁 7시30분, 교육관
4. 신알대학 2학기 개강 : 등록-9월 7일까지, 교육국(5-0041)  
개강식-9월 9일 오후 7시30분, 센타 회의실
5. 8월중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일시-31일(토) 오후 9시~9월 1일 오전 6시  
장소-전주 효자동천주교회, 참석범위-모든 교우들, 지도-박중신 신부님
6. 교구단위 성령기도회 : 일시-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참석범위-성령세미나 받은 모든분들, 지도-박중신 신부님
7. 군·옥지구 화요성서 강의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30분  
장소-옥봉성당, 강사-김준호 신부님  
※ 금요일을 화요일로 변경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당을 조월하여 원하시는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8. 4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 9월 8일 2시 30분, 장소-신태인성당, 전원 참석 바람
9.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9월 월례 모임 : 일시-9월 9일 오후 6시 30분  
대상 : 각 지구 입원 및 각 본당 회장 (불참시 대리 참석 요망)
10. 주사변경

이태주 신부님 : Berliner str. 47D  
6500 Mainz

WEST-GERMANY Tel 06131 / 52558

〈군중〉 경규봉 신부님 : Tel 93-4601(부대전화)

160-70 인천시 북구 구산동 80번지 번개관사 1호

나춘성 신부님 : Tel 사내면 2

200-2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명월천주교회

정양현 신부님 : Tel 0364 · 2610

200-33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노도천주교회

※ 축 영명 : 성 아우구스티노(28일)

김제덕 주교님, 김영일, 강덕창, 한정현 신부님 축하합니다

## ♣ 잡 관 !

우리는...?

멀리 낯설은 타국에서도 교생 속에 모은 정성을 보내왔다.

아르헨티나 한국인 성당(전대북 신부) 신자들이 교구 장애자 복지사업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 \$ 821(720,731원)을 보내왔고 미국 아틀란타 한국인 성당(한봉섭 신부) 신자들도 교구 성소후원사업을 위해 성금 \$ 4000(3,511,480원)을 모아 귀국하시는 교구장님 편에 보내온 것.

무덤고, 그래서 짜증스런 연일의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호뭇한 소식이 아닌가!

멀리서도 교구를 위해 그토록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두는 모습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부끄럽다.

과연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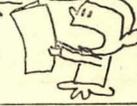
교포신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정작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싶다.

## 요십이 (629)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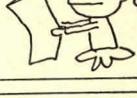
고대상 7명 17일구속,  
성군관대상 3명 17일구속



서울대생 1명 19일구속,  
전국대생 2명 19일구속



학생들이 시위때문에 (이 신문 이름이 많이 잡혀 가는데... 무엇일까?)



## 모 시 는 글

동산 천주교회 성전 신축 기공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님의 성전, 우리의 집을 짓겠다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부디 오셔서 힘을 주십시오.

다 음

때 : 8월 25일(일) 오후 4시  
곳 : 동산촌 조촌국민학교 앞  
동산 성전 신축 부지

1985. 8. 15

동산 천주교회 신자들 드림

### 동 보 한 의 원

#### 동 부 약 국

이리 동부시장 입구

이리 ☎ 52-4 6 6 6

3-7 2 1 7

원장 김경환(바비아노)

약사 범순복(안나)

### 희 소 식 !

독사백 물리사람 전문 치료  
합. 五代째

연락처 : 전주시 전미동1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시내버스 번호 ①④⑤번차

전화 ⑥ 3 5 4 4

송 준 의(발라바)

밝은 눈, 맑은 눈

### 고 려 안 경 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 서원 옆

☎ 72-5 7 7 0

김 흥 균(베드로)

### 축 ! 결 혼

신랑 : 최 충식 (바로로)

신부 : 양 지영 (테레사)

주례 :

김용태 (베네딕토) 신부

일시 : 8. 25. (일) 12시

장소 : 전주 노송천주교회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옹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1. 전자올겐 구입기금 신입합니다  
박인식-20구좌, 남노2구역-5구좌, 양민식-4구좌  
최영옥·황보용남-각2구좌, 박무시아·박귀남·백백남  
조발바라·최보례·이금옥·장안나·김마리아·최승호·이  
승춘-각 1구좌, 계-215,000원, 누계-2,280,000원
  2. 유아 영세식 : 31일 오후 3시  
대부모님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3. 구역 봉사자 모임 : 30일 오후 8시
  4.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 월납제를 준수하여, 본당 운영에 협조합니다
  5. 공소 순회미사 : 31일 저녁 8시-신교리공소
  6. 금주의 전례담당 : 제1조, 차주는 제2조가담당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24,935원 교무금 : 488,000원  
성모승천 헌금 : 387,485원 신축금 : 3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공소 순회미사 : 오늘 오후 2시-마음리 · 오후 4시-  
광곡리  
공소신자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매월 끝주일에는 공소 순회미사가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교리교사 단합대회 : 장소-지리산, 19일~21일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3. 반장님 단합대회 : 20일 책장리에서 있었습니다
7.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독서	2독서	기 도
첫 미사	유해미	박장춘	이성희	박 병 환
공식미사	신영창 김은경	박경환	조정웅	봉사·분과
저녁미사	문미옥	김정민	윤정순	이 덕 순

- 지난주 봉헌금 : 일반-358,980원  
중·고생-11,440원 주일학교-5,920원  
계-376,340원 교무금 : 436,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사도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주일학교 개학 : 9월 1일부터  
주일학교-오후 2시, 어린이미사-오후 3시
  3. 예비자 교리 안내 : 매주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저녁 8시
  4. 미사시간 안내  
주일 : 새벽미사-5시30분 · 학생미사-오전 9시  
공식미사-10시30분 · 어린이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30분  
월요일-새벽 5시30분, 화요일-저녁 7시30분  
수요일-오전 10시 어머니미사  
금요일-저녁 7시30분  
토요일-저녁 7시30분 특전미사  
※ 미사에 귀하지 말고 늦지 않도록 하세요
  5. 금주 성당청소 : 월-다위의 탑pr, 토-셋별pr  
차주 성당청소 :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6. 금주전례 : 해설-최희숙, 독서-①천 건 ②조성호  
차주전례 : 해설-김재식, 독서-①이갑진 ②김운자
- 지난주 봉헌금 : 186,530원 교무금 : 483,95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병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사도회 : 9월 1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 9월 7일 오전 11시
  3. 주일학교 자모회 : 9월 3일 오전 11시
  4. 성마리아 꾸리아 : 오늘 오후 2시
  5. 주일학교 개학 : 9월 1일 1시50분까지  
※ 교리책 · 어린이 미사책 준비 바랍니다
  6. 축! 영명 : 조례지나 수녀님 (9월 7일)  
김병오(그레고리오) 회장님 (9월 3일)
  7. 전동 울뜨레아 : 26일 오후 8시
  8. 다음주 봉헌담당 : 이덕수 부부
  9. 수세식 화장실 공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영희,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양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신일균 ②장금배
- 지난주 봉헌금 : 869,210원 교무금 : 1,082,5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심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청년회 심신 수련회(공동체 생활)  
일시 : 31일 오후 1시~9월 1일(1박2일)  
장소 : 전남 순천→신암사→송광사, 회비-5천원
  2. 청년회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3. 사도회 월례회 : 31일 저녁미사 후
  4. 구역 대의원회 : 9월 1일 공식미사 후
  5. 예비자 교리 : 매주 수요일 저녁  
※ 예비자를 많이 인도합니다
  6. 봉사 : 9월 1일 공식미사 후 어린이·노인분의 이발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4,460원 교무금 : 45,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심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주부 성서대학 : 가을학기 개강-9월 4일 오전 10시
  2. 중·고학생 전체모임 : 다음주일 학생미사 후(10시)
  3. 유아세례 : 오늘 10시  
자모회-11시30분
  4. 은혜의 밤(철야기도) : 31일 밤 9시부터
- 지난주 봉헌금 : 448,950원 교무금 : 341,000원  
성모승천 헌금 : 309,530원